

가 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는 어떠한 형태로의 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ROCK

AND

톰 스토포드 작
by TOM STOPPARD

ROLL

록앤롤

국립극단 - 록앤롤 Rock 'N' Roll

작 톰 스토파드 Tom Stoppard

번역 손원정

연출 김재업

본 공연은 2006년에 영국 런던의 로열 코트 극장(Royal Court Theatre)에서 초연되었습니다.

※ 외래어 한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로큰롤' 또는 '록 앤드 롤'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나, 영어 원 제목의 어감과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한국어 공연명을 '록앤롤'로 표기합니다.

차례

| | |
|---|----|
| 연출의 글..... 김재엽 | 02 |
| 작가 소개..... | 04 |
| 공연 소개..... | 05 |
| 줄거리..... | 06 |
| 출연진..... | 07 |
| 인물관계도..... | 13 |
| 공연이해돕기 1..... 권해경 | 14 |
| 자유와 저항의 상징 록앤롤, 체코 민주화를 이끌다 | |
| 제작 스케치..... | 18 |
| 공연이해돕기 2..... 임진모 | 20 |
| 자유와 자아의 발견으로 향하는 인간 정신, 록앤롤 | |
| 공연 TIP..... 〈록앤롤 Rock 'N' Roll〉 작품 속 록 밴드 | 24 |
| 타임라인..... | 26 |
| 공연이해돕기 3..... 김장수 | 30 |
|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한 체코 민족 | |
| 공연 TIP..... 작품 속 용어 해설 | 35 |
| 연습 스케치..... | 40 |
| 스태프..... | 43 |
| 만드는 사람들..... | 44 |



일정

2018년 11월 29일(목) ~ 12월 25일(화)

장소

명동예술극장

주최

(재)국립극단

통 스토파드의 <록앤롤>에 나오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체코의 프라하를 오가면서 영어 단어 하나 하나를 새길 때마다 내 머릿속에 오가는 것은 “록앤롤처럼” 살았던 내 인생의 얼마 안 되는 순간들이었다.

이 작품은 저마다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록앤롤처럼” 살았던 20세기 사람들에게 보내는 헌정앨범이다.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열망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헌정, 스탈린주의로 왜곡된 현실과 공산주의의 독재 권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열망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헌정, 거대담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맨스플레인을 일삼는 남성중심주의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의 관점으로 인간의 원형을 탐구했던 인문주의자들에 대한 헌정, 전쟁과 폭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했던 기성세대의 보수주의에 저항했던 68세대 히피 청년들에 대한 헌정,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꿈꾸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20세기의 모든 ‘인민(人民)’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다.

21세기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통 스토파드의 <록앤롤>을 돌아보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진정한 21세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21세기에 불시착한 것은 아닐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체코의 벨벳혁명만큼이나 “록앤롤스러웠던”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록앤롤처럼”.

내 인생에서 록앤롤을 처음 만난 것은 20세기, ‘국민’학교 6학년 때였다. [들국화]의 ‘행진’을 들으며 학교에 갔고, ‘그것만이 내 세상’을 들으며 운동장 위에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지금 극장이 되어 내 눈 앞에 펼쳐져 있다. “록앤롤처럼”.

오늘 이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의 인생에 “록앤롤처럼” 펼쳐질 보석 같은 순간들을 기원합니다.



김재엽

김재엽 Kim Jae-yeop |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연극 〈자본〉 〈애도하는 사람〉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국가 없는 나라: 사라진 기억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배수의 고도〉 〈알리바이 연대기〉 〈여기, 사람이 있다〉 〈장식조네 사람들〉 〈마호로바〉 〈꿈의 연극〉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 〈유령을 기다리며〉 외

주요수상 2015 제23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알리바이 연대기〉 | 2013 제5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 〈알리바이 연대기〉 | 2011 제32회 서울연극제 희곡상 〈여기, 사람이 있다〉 | 2009 제9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연출상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 | 2009 공연과 리뷰(PAF) 연출상 〈꿈의 연극〉 | 2005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대상·연출상 〈유령을 기다리며〉 | 2002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페르소나〉



톰 스토포드
Tom Stoppard

※ 한국에서 공연되지 않은 작품은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위해 영어 원어로만, 정식 공연되었던 작품은 한국어 번역 제목과 원어를 병기 하였습니다.

작가 연보

- 1937 체코슬로바키아 출생
- 1939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싱가포르로 이주
- 1946 일본의 싱가포르 점령으로 인해 아버지 사망 후, 영국인 장교와 재혼한 어머니와 영국 정착, 영국 잉글랜드의 노팅엄셔와 요크셔에서 공부
- 1954 '웨스턴 데일리 프레스The Western Daily Press'에서 기자로 근무
- 1958 '브리스톨 이브닝 월드The Bristol Evening World'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연극 비평 시작
- 1962 『씬Scene』 매거진에서 본격적인 연극관련 작문 활동 시작
- 1963 라디오 연극 〈The Dissolution of Dominic Boot〉, 텔레비전 연극 〈A Walk on the Water〉 방영
- 1966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The Edinburgh Fringe Festival에서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첫 공연
- 1967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영국 국립극장 및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Albert's Bridge〉 라디오 방영
- 1968 〈진짜, 하운드 경위 The Real Inspector Hound〉 공연
- 1969 〈Albert's Bridge〉 〈If You're Glad I'll Be Frank〉 공연
- 1972 〈His play Jumpers〉, 〈Lorca's The House of Bernarda Alba〉 공연, 영국 왕립 문학학회 회원The Royal Society of Literature 선정
- 1974 〈Travesties〉 공연
- 1977 〈Every Good Boy Deserves Favour〉 〈Professional Foul〉 공연
- 1982 〈진짜 사랑, 거짓 사랑 The Real Thing〉 공연
- 1983 '톰 스토포드 상' 출범(체코 출신 작가에게 수여)
- 1989 영국 국립극장위원 역임
- 1991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 톰 스토포드 자료 보관소 개설
- 1997 영국 기사 작위 부여
- 1998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Shakespeare in Love〉(각색) 발표
- 2000 영국 공로 훈장 수여
- 2002 〈The Coast of Utopia〉 공연, 런던 도서관 총장 취임
- 2006 〈록앤롤 Rock 'N' Roll〉 공연
- 2008 『타임Time』이 뽑은 영향력 있는 인물 76위 선정
- 2012 영화 〈안나 카레니나 Anna Karenina〉 발표
- 2015 〈The Hard Problem〉 공연
- 2017 영화 〈Tulip Fever〉 발표, 영국 컨템포러리 극장Contemporary Theatre 객원 교수 임명

공연

소개

〈록앤롤 Rock 'N' Roll〉 공연 연보

| | | | |
|---------|---|---------|----------------------|
| 2006.06 | 런던 로열코트씨어터/ 영국 *초연* - 공연 개막일에 체코 초대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과 록밴드 '롤링 스톤즈'의 멤버 믹 재거 참석 | 2009.12 | 런던 일링 더케스터씨어터/ 영국 |
| 2006.07 | 런던 듀크오브요크씨어터/ 영국 | 2010.01 | 세인트폴 파크스퀘어씨어터/ 미국 |
| 2007.02 | 프라하국립극장/ 체코 - 첫 공연과 마지막 공연에 체코의 록밴드 '플라스틱 오브 더 유니버스' 참석 | 2010.02 | 산호세 스테이지컴퍼니/ 미국 |
| 2007.11 | 뉴욕 버나드비제이콥스씨어터(브로드웨이)/ 미국 | 2010.08 | 도쿄 세타가야퍼플릭씨어터/ 일본 |
| 2008.04 | 더 시드니 씨어터/ 호주 | 2010.11 | 세인트루이스 액터스튜디오/ 미국 |
| 2008.09 | 샌프란시스코 아메리칸콘서바토리씨어터/ 미국 | 2010.11 | 이스탄불 공립대학교 극장/ 터키 |
| 2008.09 | 바르셀로나 씨어터/ 스페인 | 2011.01 | 코소보 국립극장/ 코소보 |
| 2009.02 | 맨체스터 라이브러리씨어터/ 영국 | 2011.02 | 버몬트 애비폴리시/ 미국 |
| 2009.04 | 워싱턴 더스튜디오씨어터/ 미국 | 2011.03 | 뉴욕 버팔로 카비노키씨어터/ 미국 외 |
| 2009.05 | 시카고 굿맨씨어터/ 미국 | | |
| 2009.09 | 토론토 더캐네디언스테이지컴퍼니/ 캐나다 | | |
| 2009.10 | 시애틀 ACT씨어터/ 미국 | | |

〈록앤롤 Rock 'N' Roll〉 수상

2006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연극부문 최우수작품상

수상

| | | |
|------|--|--|
| 1967 |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상Evening Standard Award | 유망 작가상 |
| 1967 | 영국 런던 연극 비평가 상London Theatre Critics Award | 〈로젠크란츠와 길덴스 턴은 죽었다〉 |
| 1968 | 미국 토니 상Tony Award | 작품상, 미국 뉴욕 드라마 평론가협회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작품상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
| 1976 | 미국 토니 상 | 작품상, 미국 뉴욕 드라마 평론가협회 베스트 작품상 〈Travesties〉 |
| 1982 |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상 | 작품상 〈진짜 사랑, 거짓 사랑 The Real Thing〉 |
| 1984 | 미국 토니 상 | 작품상 〈진짜 사랑, 거짓 사랑 The Real Thing〉 |
| 1997 |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상 | 작품상 〈The Invention of Love〉 |
| 2007 | 미국 토니 상 | 작품상 〈The Coast of Utopia〉 |
| 2013 | 영국 펜 퍼터 문학상PEN Pinter Prize | |
| 2017 | 영국 데이비드 코헨 문학상David Cohen Prize | 외 다수 |

〈록앤롤 Rock 'N' Roll〉은 파스한
감성으로 다가오는 공연이다. 지적이고
도전적이면서 강렬한 작품!
- 월스트리트 저널

재미있고 매력적이다! 톰 스토파드는 본인의
예전 작품인 〈유토피아의 해변 THE
COAST OF UTOPIA〉과 비슷한 시선과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더욱 더리하게 주목시킨다.
- 뉴욕포스트

멋지다. 〈록앤롤 Rock 'N' Roll〉은
틀림없이 톰 스토파드 작품 중 가장
잘 만들어진 희곡 중 하나다. 수십
년간에 걸친 사랑, 혁명, 음악 이야기가
매우 강렬하게 다가온다. 스토파드는
〈록앤롤〉의 인물들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 동안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 뉴욕타임즈

1960년대 혼란의 시대.

In turmoil during the 1960s.

영국 유학 중, 록 음악에 빠져버린 체코청년 얀.

Jan, a Czech student, got hooked on rock music while studying in the UK.

프라하의 봄을 맞아 존경하는 스승과 공부를 등지고 고향에 돌아온다.

He turned his back on his mentor and his studies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for Prague Spring.

하지만 봄의 꽃은 피지 않았고,

But flowers failed to bloom during the Prague Spring and only because he loved rock music,

록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얀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다.

Winter came to Jan's life.





강신일 Kang Sin-il

막스 Max

연극

〈레드〉 16,13,11 | 마크 로스코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양덕원 이야기〉 16 | 지씨 | 대학로예술마당 2관
 〈슬픈 인연〉 15 | 백윤석 | 명동예술극장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14 | 강신일 | 남산예술센터
 〈슬픈연극〉 14 | 장만호 | 아트원씨어터 3관
 〈광부화가들〉 13 | 올리브 | 명동예술극장
 〈강신일과 여우〉 12 | 강신일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거기〉 12-13 | 장우 | 아트원씨어터 3관
 〈삼국유사 프로젝트-꿈〉 12 | 이광수 | 백성희장민호극장
 〈칠수와 만수〉 86 | 만수 | 신촌연우극장

외

뮤지컬

〈남한산성〉 09 | 최명길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금강〉 05 | 시인 | 평양 봉화예술극장

외

수상

2002 제10회 춘사 영화제 남우조연상
 1999 제35회 동아연극상 최우수연기상
 1999 제23회 서울국제연극제 연기상
 1995 제19회 서울연극제 현대연극상 연기상



이종무 Lee Jong-moo

얀 Jan

연극

〈운명〉 18 | 양길삼 | 백성희장민호극장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18 | 준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3월의 눈〉 18 | 황씨 | 명동예술극장
 〈비평가〉 17 | 스키타파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그렇게 산을 넘는다〉 17 | 아빠 | 아라리오뮤지엄 소극장
 〈과학하는 마음-숨의 심연〉 16 | 일호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깃분우리절문날〉 15 | 구보 박태원 | 선돌극장
 〈알리바이 연대기〉 14 | 청년 태용 | 백성희장민호극장
 〈숨쉬려나간다〉 12 | 조지볼링 | 대학로예술극장 3관
 〈영원한 평화〉 12 | 임마누엘 |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

외



장지아 Zhang Zia

엘레나 Eleanor

연극

〈페리클레스〉 15-16 | 디오니자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세자매〉 13 | 이리나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밤으로의 긴 여로〉 12 | 캐틀린 | 명동예술극장
 〈아마데우스〉 11 | 콘스탄체 | 명동예술극장
 〈우어파우스트〉 11 | 그레트헨 | 명동예술극장
 〈마리화나〉 06-07 | 단지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에쿠우스〉 05 | 질 메이슨 | 학전블루소극장
 〈Getting Out〉 05 | 알리 홀스클로 | 학전블루소극장
 〈남자충동〉 04 | 달래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생존도시〉 01-02 | 두리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외

수상

2012 제17회 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05 제26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정새별 Jung Sae-byul

에스메 Esme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8 | 공주 | 명동예술극장 외
 〈성〉 18 | 프리다 | 명동예술극장
 〈선을 넘는 자들〉 18 | 윤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984〉 17 | 줄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17 | 미소 | 소극장 판
 〈심청〉 16-17 | 간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북새통의 겨울이야기〉 16 | 페르디타 외 |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썬샤인의 전사들〉 16 | 송시자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고등어〉 16 | 강경주 | 국립극단 소극장 판
 〈외계인들〉 15 | 에반 | 게릴라극장 외
 외

수상

2018 제5회 서울연극인대상 신인연기상



이다혜 Lee Da-hye

앨리스 Alice

연극

〈자본〉 18 | 다혜 |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

〈소예츠-한반도의 하얀 태양〉 17 | 강영미 | 남산예술센터

〈가족병〉 16 | 다혜 | 소극장 혜화당

〈언더스터디〉 16 | 어린 분장사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안녕 양코르〉 15 | 소년 | 아트원씨어터 3관





김한 Kim Han

페르디난드 Ferdinand

연극

〈페스트〉 18 | 조제프 그랑 | 명동예술극장
 〈3월의 눈〉 18 | 일본인관광객, 인부 | 명동예술극장
 〈사천의 착한 살인〉 17 | 센테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빛의 제국〉 16, 17 | 위성곤 | 명동예술극장 외
 〈겨울선인장〉 15 | 가즈야 | 윤당아트홀
 〈키사라기 미카짱〉 12, 15 | 이에모토 | 대학로예술마당
 〈가을반딧불이〉 14 | 분페이 | 대학로예술극장 외
 외

뮤지컬

〈운현궁 로맨스〉 13 | 흥선대원군 | 구로아트벨리
 외

영화

〈달콤한 인생〉 05 | 세윤
 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8 | 나카무라 | tvN
 외



양서빈 Yang Savine

렌카 Lenka

연극

〈운명〉 18 | 박메리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8 | 한국인 관광객 외 | 명동예술극장
 〈빛의 제국〉 16, 17 | 소지 | 명동예술극장 외
 〈탈출, 날숨의 시간〉 16-17 | 미션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외
 〈화류비련극 흥도〉 14-15 | 흥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칼로막베스〉 10, 11, 14 | 맹인술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부활〉 13 | 미시 코르차기나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한꺼번에 두 주인을〉 12 | 클라리스 | 명동예술극장
 〈들소의 달〉 11 | 선녀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푸르른 날에〉 11 | 정혜 | 남산예술센터
 외

수상

2015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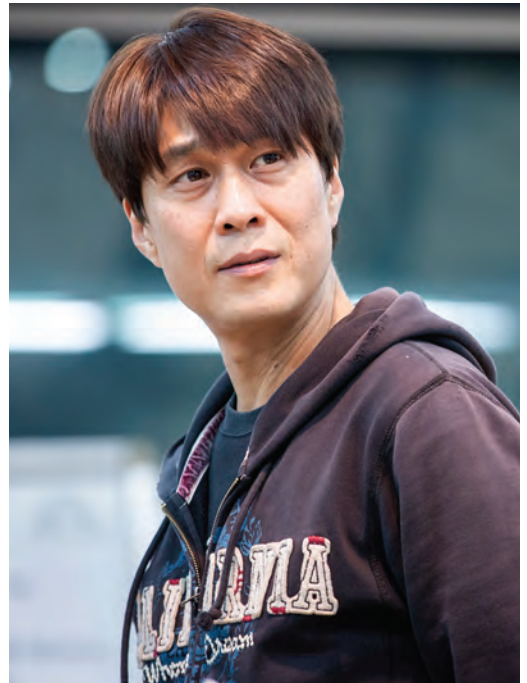


정원조 Jeong Won-jo

나이젤 Nigel

연극

〈오슬로〉 18 | 아이르 하시펠트 | 명동예술극장
 〈사물함〉 18 | 재우 | 국립극단 소극장 판
 〈더 헬멧〉 18 | 헬멧A | 아트원씨어터 3관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재엽 | 예술의전당 소극장
 〈글로리아〉 17 | 로린 | 아트원씨어터 3관
 〈생각은 자유〉 17 | 재엽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베헤모스〉 17 | 오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고래핼릿〉 16 | 핼릿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잔치〉 16 | 장진호 | 남산예술센터
 〈엘리펀트송〉 15-16 | 그린버그 | 수현재씨어터 외
 외



최지훈 Choi Ji-hoon

밀란, 웨이터 Milan & Waiter

연극

〈오슬로〉 18 | 유리 사비르 | 명동예술극장
 〈성〉 18 | 한스 외 | 명동예술극장
 〈토일릿 피플〉 17 | 한주영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짜지르는 것들〉 16 | 비더만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뷰티풀 선데이〉 15 | 오정진 | 한양레퍼토리
 〈만선〉 13 | 연철 | 예술의전당 소극장
 〈숲 속의 잠자는 옥희〉 12 | 김기자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동주양〉 11 | 동 알롱즈 | 명동예술극장
 〈황구도〉 11 | 거칠이 | 대학로 티오엠 2관
 〈당신의 잠〉 10 | 이한수 | 남산예술센터
 외



강해진 Kang Hae-jin

질리안, 마그다, 캔디다 Gillian, Magda & Candida

연극

〈오솔로〉 18 | 트롤 외 | 명동예술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레이디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말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선을 넘는 자들〉 18 | 옥진선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17 | 연화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유리디스〉 17 | 유리디스 | 여행자극장
 〈재생불량소년〉 16 | 경우 | CJ아지트 대학로
 〈백묵원 유전유죄 무전무죄〉 15-16 | 그루세 | 성수아트홀
 〈졸업작품〉 15 | 보람 | 대학로 브띠첼 시어터
 〈해경궁 홍씨〉 13-14 | 화완옹주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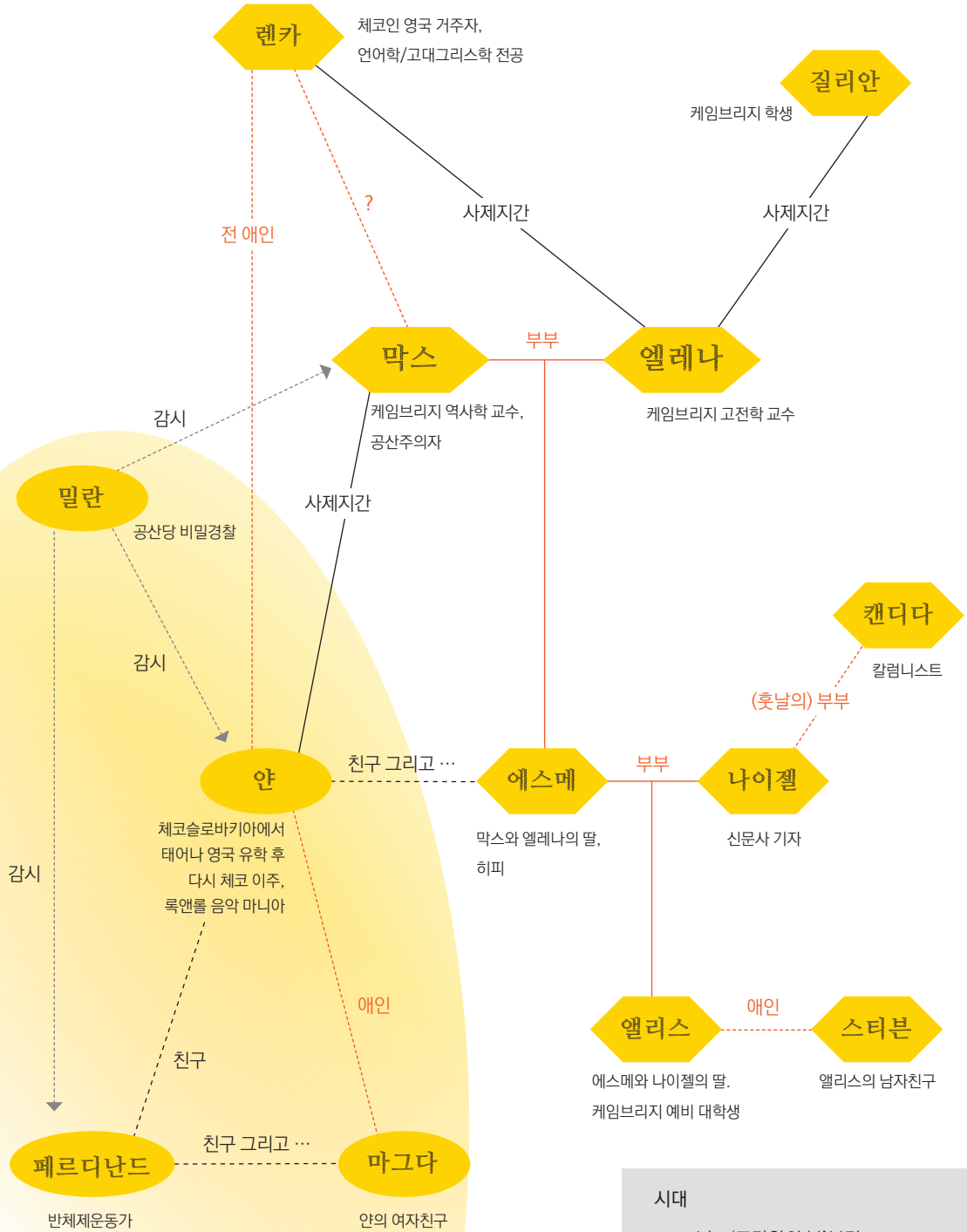
김세환 Kim Se-hwan

스티븐, 피리부는 남자 Stephen & The Piper

연극

〈향수〉 18 | 아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자본〉 18 | 세환 |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
 〈4Four〉 17, 18 | R | 아트원씨어터 3관
 〈보통의 택시〉 18 | 멀티 | 한양레퍼토리
 〈연꽃정원〉 17 | 백자효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여행이야기〉 17 | 종연 외 | 나온씨어터
 〈승관도〉 16 | 마국장 | 드림씨어터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16 | 윤관석 외 | 연주소극장
 〈잔 치〉 16 | 진욱 | 남산예술센터
 〈별이 빛나는 밤〉 15 | 테오 | 76스튜디오

영국



시대

1968년 '프라하의 봄'부터

1989년 '벨벳 혁명'까지

자유와 저항의 상징 록앤롤, 체코 민주화를 이끌다

권혜경 동서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작가 톰 스토파드

톰 스토파드(Tom Stoppard, 1937-)는 심도 있는 주제와 다양한 연극적 기법을 시도해 온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극작가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싱가포르와 인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1946년 영국으로 건너왔다.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다 1967년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로젠크렌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1967)로 영국 연극계에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떠도는 등장인물들의 지적인 언어유희와 의미의 상대성을 담은 이 작품으로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뒤이어 발표한 『곡예사』(*Jumpers*, 1972), 『희화화』(*Travesties*, 1974) 등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나 시간 반복 기법을 통한 사실/허구의 병치 등을 다루며 초창기의 부조리극적인 특색에서 벗어났다.

1977년 2월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일원으로 소련과 동구권 국가를 방문한 스토파드는 공산권 국가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후 그는 소련 통치하 동유럽 국가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소재로 한 일련의 극작품을 발표한다. 특히 체코의 인권 문제에 대한 스토파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열정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개인사적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77년 6월 체코를 방문한 스토파드는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만났으며 그중에는 훗날 대통령이 되는 극작가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과의 깊은 교류도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스토파드의 극작 세계는 『진짜』(*The Real Thing*, 1982), 『헵굿』(*Hapgood*, 1988), 『아카디아』(*Arcadia*, 1993), 『사랑의 발명』(*The Invention of Love*, 1997)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영국을 배경으로 과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 연극 장면과 현실이 교차하는 사랑 이야기 『진짜』는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19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카오스 이론과 엔트로피 등 과학적 요소로써 스토리를 풀어나간 『아카디아』는 이브닝 스탠다드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유토피아의 해안』(*The Coast of Utopia*, 2002) 삼부작이나 『록앤롤』(*Rock'n'Roll*, 2006) 등의 작품에서 다시 인간과 사회의 문제가 대두됨을 알 수 있다. 전자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19세기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사상적 여정을 『항해』(*The Voyage*), 『난파』(*Shipwreck*), 『구조』(*Salvage*) 세 작품을 통해 그린 대서사시이다. 스토파드는 『유토피아

피아의 해안』 삼부작으로 다시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다. 『록앤롤』은 1960년대 후반 체코의 민주화 과정에 자유와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록앤롤 음악이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역사와 사상, 그리고 예술은 스토파드의 작품 세계를 이끌어 온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 인터뷰에서 작가 스스로도 “과거사에 매력을 느낀다”고 밝혔듯이 그의 작품에는 역사적인 소재가 많이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 외에도 1930년대 영국 식민 지배 하의 인도와 현대 영국을 병치시킨 『인디언 잉크』(Indian Ink, 1995)나, 19세기 말 영국의 문헌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동성애자 알프레드 하우스먼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랑의 발명』도 역사와 사상, 나아가 예술이 잘 버무려진 작품들이다.

스토파드는 영국 연극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영국여왕으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으며, 예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대학교 등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최근작으로는 인간의 의식 세계를 소재로 한 『어려운 문제』(The Hard Problem, 2015)가 있다.

희곡 『록앤롤 Rock ‘N’ Roll』

『록앤롤』은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20 여년의 시간 위에 진행된다. 1968년 1월 체코 공산당 제1서기장에 오른 알렉산드르 둠체크(Alexander Dubček)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소위 ‘프라하의 봄’이라는 체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그해 8월 소련군의 침공으로 실각하는 시점부터 극이 시작된다. 그리고 연극의 마지막은 1989년 체코 민주화 시민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하벨이 대통령으로 임명된 후 이듬해 프라하에서 열린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의 초청 공연 장면으로 끝난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체코의 프라하 두 장소를 배경으로, 체코 출신의 유학생 얀(Jan)과 그의 친구 페르디난드(Ferdinand), 스승인 영국인 공산주의자 막스(Max) 교수 일가족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록앤롤』은 스토파드의 가장 자전적인 희곡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이는 체코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건너 온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서 그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을뿐더러, 작가 스스로가 이 작품을 “일종의 유사 전기”라고 지칭하는 데서 보다 확실시된다.

『록앤롤』은 체코의 민주화 과정이 언더그라운드 록그룹 ‘더 플라스틱 피플 오브 더 유니버스’(The Plastic People of the Universe, 이후 ‘플라스틱 피플’로 표기함)에 대한 체코 공산 정부의 탄압에 대해 반체제 인사들이 결집함으로써 촉발된 역사적 사실로부터 록앤롤을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해 스토파드는 서구 록앤롤 음악을 좋아해 LP 음반을 사 모으며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주인공 얀이 전체주의적인 국가의 통제 속에 서서히 체코의 반체제 인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극의 주된 줄거리로 설정하고 있다.

극 초반 케임브리지에 유학 중이던 29세의 얀은 체코에 소련 군대가 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할 결심을 한다. 얀은 서구 문화, 특히 영미권의 록음악에 심취해 있다. 그의 체코 친구인 페르디난드 역시 록앤롤을 좋아해서 얀의 레코드를 빌려 가 녹음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극 초반 현실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은 판이하다. 페르디난드가 둠체크의 실각과 뒤이은 구스타브 후사크(Gustáv Husák)의 집권, 언론 검열 등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서명을 받으려 하는 데 반해, 얀은 체코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며 서명을 거부한다. 그러나 뒤이은 1971년의 장면에서는 체코 정부의

〈록앤롤 Rock 'N' Roll〉 작품 속 음악

Bob Dylan 밥 딜런

- I'll Be Your Baby Tonight

The Rolling Stones 롤링스톤스

- It's All Over Now
- It's Only Rock'n' Roll
- You Got Me Rocking

The Velvet Underground 벨벳 언더그라운드

- Venus in Furs
- Waiting for the Man

Pink Floyd 핑크 플로이드

- Astronomy Domine
- Welcome to the Machine
- Wish You Were Here
- Vera

Syd Barrett 시드 배럿

- Golden Hair
- Terrapin

Grateful Dead 그레이트풀 데드

- Chinatown Shuffle

The Beach Boys 비치 보이스

- Wouldn't It Be Nice

U2 유투

-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Guns n' Roses 건스 앤 로지스

- Don't Cry

총성 서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던 안이 다른 2,000 여 명의 지식인들과 더불어 직장에서 쫓겨나 자신의 전문 분야와는 동떨어진 하급 노동직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

안이 체코의 현실에 대해 가졌던 낙관적인 환상은 총성 서약의 거부와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데, 이는 그가 애지중지해 온 록앤롤 LP판들이 가택 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산산조각 나는 장면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체코 공산 정부 치하에서 서양 록 음악은 사회적으로 불온한 음악이며, 이를 연주하는 음악가들 역시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록 그룹 '플라스틱 피플'의 등장이 몰고 온 파장은 예상된 것이었다.

'플라스틱 피플'은 소련 군대가 체코에 침공한 지 한 달 뒤인 1968년 9월에 결성되었다. 자유분방하고 냉소적인 그들의 음악은 곧 체코 정부의 검열 대상이 되며 일체의 공연이 불허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은 위장된 강연이나 결혼식 행사 등을 통해 은밀히 록앤롤 공연을 감행하였다. 공연 장소는 비밀리에 물색되어 하루 전에야 입에서 입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관객들은 주로 깊은 숲속에 위치한 외딴 농가나 외양간 등의 공연 장소를 찾아 참석하였다.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 표현하려 했던 '플라스틱 피플'의 활동은 체코 당국이 우려하듯 정치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었다. 연주자나 관객 모두 위험에 굴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하고 또 그 연주를 찾도록 만든 데는 록앤롤 음악의 본질적 속성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록앤롤이라는 음악 장르에 내재한 근원적인 자유로움과 열정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플라스틱 피플'의 활동은 곧 다른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체코 정부는 1976년 이 그룹 멤버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악가들과 시민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플라스틱 피플' 멤버들에 대한 구명 운동이 표면화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주창하는 '77 헌장'으로 이어져 240 명이 공동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록앤롤』의 주인공 안 역시 극 중에서 '77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투옥을 당한다. 이러한 모습은 극 초반 록 음악을 즐겨듣고 또 체코 공산 정부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던 그의 모습과는 극명히 대조를 이룬다. 그가 좋아하던 록 그룹 멤버들의 구속은 안으로 하여금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체코 정부의 독재에 눈뜨게 했고, 이후 지속적인 반체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다.

작품 속 안의 의식 변화는 체코의 민주화 시민혁명을 이끌어 낸 체코



지식인들의 의식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록앤롤 음악으로 상징되는 자유롭고 개인적인 인간 영혼의 발현을 지켜내고자 한 체코 시민들의 바람이 민주화 시민 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다. 비정치적이었던 록앤롤 그룹에 대한 탄압과 구속이 몰고 온 체코 반체제 운동 세력의 결집과 지속적인 저항,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낸 무혈 민주화 운동, 곧 ‘벨벳 혁명’의 성공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술의 총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주된 한 사례이다.

록앤롤은 이 작품에서 체코 민주화 운동의 저항적 요소로서 극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형식적인 프레임에 제공하고 있다. 스토파드는 장면의 구분을 암전(blackout)과 록앤롤 음악으로 대체하는데, 시대와 극중 장소, 등장인물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록 음악들을 골고루 배치한다. 그가 사용하는 음악은 밥 딜런, 롤링 스톤즈를 비롯하여 도어즈, 벨벳 언더그라운드, 유투, 건즈 앤 로지스 등 60년대 말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상징적인 록 그룹들의 음악이다. 록앤롤 음악은 무대 음향효과의 기능뿐만 아니라 스토파드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록앤롤의 자유정신과 저항정신을 무대상에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록앤롤 음악은 안과 에스메(Esme) 두 주요 인물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 38페이지 참조

특히 연극의 도입부를 핑크 플로이드의 원년 멤버인 시드 배럿(Sid Barret)의 음악으로 시작하고 또 그의 이미지를 목신(Pan)의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점은 인상적이다. 이는 좁게는 ‘플라스틱 피플’의 음악을, 넓게는 이 작품의 키워드인 록앤롤 음악의 세계를 억압적 체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이교도적인 속성과 결부시키려는 작가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그리스 고전을 가르치는 막스 교수의 부인 엘레나(Eleanor)를 등장시킴으로써 목신과 뮤즈가 존재하는 이교도적인 세계를 더욱 확장시킨다. 고대 그리스의 여류 시인 사포(Sappho)의 작품이 다루어지는 엘레나의 고전 강의는 극중 체코 공산 정부나 막스 교수의 이데올로기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과 대척점에 위치한다.

혁명과 록앤롤, 개인과 역사라는 두 이질적 요소의 충돌과 발전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표현의 자유라는 순수한 기본 인권에 대한 갈망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과물로 발전하는 독특한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록앤롤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이자 등장인물들을 이어주는 매개이며, 장면과 장면 사이, 혹은 개별 장면의 효과음 등으로 빈번히 사용됨으로써 극의 주제와 형식을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록앤롤은 자유를 향한 본질적인 열망이자 결코 바래지 않는 젊음의 상징이다.

제작

스케치

무대 디자인 ● 서지영

서지영 Seo Ji-young

연극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0세기 건담기〉 〈손〉 〈어쩔 수가 없어〉
〈불량청년〉 〈하드보일드 멜랑콜리아〉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용의자X의 헌신〉 〈알리바이 연대기〉
〈과학하는 마음-숲의 심연 편〉 〈장석조네 사람들〉 외

수상 2017 제38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손〉 | 2013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무대예술상 〈알리바이 연대기〉



케임브리지



당신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레코드판은 돈다.

— 무대디자이너의 말



프라하



자유와 자아의 발견으로 향하는 인간 정신,

록앤롤

임진모 음악평론가

어떤 사회든 그 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와 운용체계에는 분명 주류(mainstream)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 상층이동을 꿈꾸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주류의 법질서와 제도를 따르고 봉사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현재 그 주류의 질서와 체계를 답답하고 억압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반대하고 싸우며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반(反)주류'일 것이다.

특히 보수적 통치의 시대, 예를 들어 국내의 3공 5공 6공의 시대를 살며 민주화를 열망하고 그 투쟁을 실천한 사람들의 아우성이라 할 그룹 '들국화', 미국으로 치면 레이건 보수시대에 정면으로 맞선 노동계급의 대변자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좌파로 분류된다. 확실히 20세기의 음악 문법인 록앤롤(Rock and roll) 즉 줄여서 록은 이러한 '좌' 성향을 넘나들었다. 록을 '젊음의 저항 음악'으로 정의하는 연결고리가 여기서 생겨났다.

사회가 보수적 분위기로 지배되어 있을 때 젊음의 외침은 반주류의 성격과 맞물리고 이른바 정치적 좌파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록앤롤을 좌파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주류는 주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그들이 새로운 주류가 된다. 지배질서에 저항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또 다른 지배질서를 형성한다. 록앤롤의 정체성은 이 대목에서 주어진다.

록은 좌우 아닌 무소속이다

결론적으로 록앤롤은 사회현실에 따라 우가 되고 좌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순혈' 록앤롤 스피릿(Spirit)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좌우에 속하지 않는, 아니 속하기를 거부하는 '무소속'과 가까운 예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말하자면 비(非)주류? 조금 자세하게 말해 저항적 형질의 비주류라고 할까. 좌우의 격전장이라고 할 '지배질서'와 비켜나 있는, 그것에 떨어져 있는 흐름인 것이다. 록앤롤은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우파와 좌파가 아니라 어떤 이념이 묻어있든 '지배질서'와 유리되려는 흐름이다.

지배질서는 법과 도덕, 국가와 정부에 의해 유지된다. 록앤롤 밴드와 가수들은 바로 이것에 의해 운용되고 움직이는 사회질서가 싫은 것이다. 때로는 좌가 되기도 하고 우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려는 비주류, 무소속 심한 경우 아나키라고 하는 게 어떨

지. 록앤롤의 역사(略史)를 본다. 록앤롤은 1950년대 미국의 흑인음악 알앤비(R&B)가 도시로 북상해 일렉트릭 기타의 증폭과 맞물려 탄생했다.

곧바로 불세출의 스타인 척 베리(Chuck Berry),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 그리고 '킹 오브 록앤롤'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출현해 급상승했고 1960년대에는 비틀스(The Beatles)와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와 같은 밴드문화와 교배하면서 기성 가치와 질서를 뒤엎으며 대세를 장악했다. 기존사회에 염증을 내는 젊음이 많았기에, 즉 록앤롤의 저항을 동의하고 숭배하는 무리가 다수가 되었기에 그들은 폭발적 성장을 거듭했고 새로운 주류로 점프했다.

1970년대가 되면서 롤링 스톤스, 더 후(The Who),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 로드 스투어트(Rod Stewart), 엘튼 존(Elton John),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등 슈퍼스타 록앤롤 밴드와 가수들은 주류 산업사회에서 맹위를 떨치며 막대한 음반판매량과 함께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저항이 아니라 사랑 노래를 편애했다. 탐욕스런 레코드회사들은 영국경제의 붕괴로 실업자들이 도시 지천에 널렸음에도 신인을 마다하고 오로지 그들과 같은 스타만을 바라보고 매출 신장에만 골몰했다.

제3그룹의 반격, 펑크 록

록앤롤 스피릿의 정점이라고 할 펑크(Punk) 록의 카운터펀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펑크에 순교한 전설의 섹스 피스톨스(Sex Pistols)는 “롤링 스톤스와 더 후는 이제 비위에 거슬린다”며 “실업자들에게 사랑 노래가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까칠한 양아치’로 불린 그들이 갈망하는 이상사회는 충격의 데뷔 싱글의 제목처럼 ‘영국의 무정부상태(Anarchy in the UK)’였다. 밴드의 리더 자니 로튼(Johnny Rotten)은 오디션에 ‘난 핑크 플로이드를 증오해!!(I hate Floyd!!)’라고 휘갈겨 쓴 셔츠를 입고 나왔다.



핑크 플로이드가 누구인가. 'Money', 'Time'과 같은 웅장한 프로그레시브 록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갈파한 밴드 아닌가. 굳이 분류하자면 그들은 좌라 할 것이다. 섹스 피스톨스가 그들을 혐오했다는 것은 그들은 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지배 질서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독립된 세상을 원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독자적 홍보와 마케팅에 의해 움직이는 '인디'(indie) 세상이었다.

섹스 피스톨스와 핑크 록 이후 원단 스피릿의 록앤롤러는 주류가 아닌 인디 레이블에서 음반을 출시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등장해 1990년대 얼터너티브 록 시대를 연 너바나(Nirvana)가 그랬다. 섹스 피스톨스와 너바나는 아마도 사회의 제1, 2 그룹(즉 우와 좌)이 아니라 제3그룹으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 한때 국내에서 주류의 아이돌 댄스음악의 독점에 대한 전선을 구축, 인디와 민족음악을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류와 맞선다는 공통점에 기반을 두었지만 좌인 민족음악과 제3그룹인 인디가 융(融)하는 것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교실로 가본다. 입시와 공부를 증오하며 록앤롤 밴드를 하려는 교실 뒤편의 '부랑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사회적 위계의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술적 인정'을 원하는 무리다. 그들도 인정욕구는 강하다. 그들은 음악적 자아실현과 자유를 염원한다. 그들은 예술적 '울트라맨'들이다. 서구의 록앤롤러들이 대부분 대학에 가지 않고 심지어 고교마저 중퇴하는 '자발적 낙오'를 단행하는 것은 지배질서와 위계에의 불참 선언이다.

록의 기본은 예술성이다

하지만 스피릿과 본질의 탐색을 잠시 잊자. 좌우 혹은 제3그룹임을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록앤롤의 기본은 대중의 공감과 감흥을 창출하는 예술로서의 기능 즉 '예술성'이다. 음악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저항적 기조를 갖추었더라도 대중이 주목하고 공감할 리 없다. 설령 '소셜테이너'나 '안티'가 아니더라도, 근래 국내에서 선풍적인 퀸(Queen)의 단 한 곡 'Bohemian rhapsody'가 웅변하듯 음악이 빠져나다면 팬들은 열광한다.

제3그룹 의식과 정신을 떠나 20세기의 록앤롤은 비틀스, 비치 보이스(The Beach Boys), 밥 딜런(Bob Dylan), 도어스(The Doors), 벨벳 언더그라운드(The Velvet Underground),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유투(U2),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같은 일련의 탁출한 예술가들 덕에 대중과 접점을 마련하는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거대한 록 수요층과 대중음악 인구를 확보했다. 그 어떤 이념과 사상보다 더 주되게 기성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극작가 톰 스토파드의 <록앤롤 Rock 'N' Roll>이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 또한 이념에 의한 정치 사회적 혁명보다 록앤롤의 예술성이 제공하는 공감의 힘, 요즘 말로 '소프트 파워'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극 중 영국에서 수학한 안이란 인물은 마르크스 사상의 세례를 받지만, 고국 체코에 돌아와 자국의 록앤롤 밴드인 '플라스틱 피플 오브 유니버스(The Plastic People of the Universe)'가 그 어떤 이념보다도 인민을 움직이고 사회변동의 바탕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가 확인한 것은 다름 아닌 대중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 록앤롤만의 광대한 흡수력이었다. 이념과 학술에 봉사한 그가 이를 실감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다. 이 이야기는 상상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 맞닿아 있는 리얼 스토리이기에 더 감동을 자극한다.

결국 스토파드의 지향은 록앤롤에 대한 긍정과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록앤롤이 설파하는 ‘자유의식’에 귀착한다. 어느 시선, 어떠한 체계와 질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개인이 하고 싶은바 그 자아의 실현, 그 자유가 바로 록앤롤이다. 일각의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일렉트릭 기타를 잡고 록앤롤 밴드를 결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배질서의 눈으로는 ‘미련함’이겠지만 다른 부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진정한 자아의 발동이다. 여기서 자기만족과 기쁨이 솟아나고 영근다. 록앤롤은 20세기에 젊음을 보낸 베이비붐 세대에게 자유의 의미를 일깨웠다는 것만으로 각별한 가치를 지닌다.

록앤롤은 자유를 일깨운다

‘아니 벌써’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와 같은 파격의 싸이키델릭 사운드를 통해 당시 숨결이 찾아든 록의 힘찬 부활을 알린 산울림의 김창완은 언젠가 “산울림 음악을 들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확고한 세대적 자신감, 말하자면 자유 의식을 갖추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록앤롤은 어디에도 포박되지 않고 억압과 획일화를 거부하며 개인의 솔직함과 자유로운 사고를 두둔한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중언하지만 맺는말은 ‘록앤롤=자유’라는 등식이다.

21세기도 어느덧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록의 위상도 적잖이 바뀌었다. 구미는 물론 우리도 현재 대중음악의 대세는 록이라 할 수 없고 힙합과 전자댄스음악 즉 이디엠(EDM)으로 패권이 넘어갔다. 인기를 누리는 록 밴드라고 해도 머룬 파이브(Maroon 5), 이매진 드래곤즈(Imagine Dragons)를 보면 록이 지금까지 날려 온 강력함이 아닌 ‘달달함’에 함몰되어 있다. 록은 분명 핏기를 잃었다. “록 스타보다 힙합 스타가 훨씬 멋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그렇다고 록앤롤의 죽음을 단정할 것인가. 각 나라의 인디는 여전히 기타와 밴드가 나서는 록앤롤 장르가 구심점을 이룬다. 일각의 평단은 힙합과 이디엠도 록앤롤 정신이 포괄하는 범주 속에 있다는 분석을 내린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록앤롤러들이 줄기차게 언급하는 말 ‘록앤롤은 죽지 않아!’(Rock and roll will never die!)는 결코 록의 애처로운 자위가 아니다. 록앤롤의 퇴각은 없을 것이다.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는 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록앤롤은 언제나 재림(再臨)한다.

< 록앤롤 Rock 'N' Roll > 작품 속 록 밴드

비치 보이스 The Beach Boys

미국 • 1962년 1집 앨범 [Surfin' Safari]

1961년 브라이언(Brian Wilson), 칼(Carl Wilson), 데니스(Dennis Wilson) 형제와 그들의 사촌인 마이크 러브(Mike Love), 마이크의 친구 앨 자딘(Al Jardine)으로 처음 시작된 비치 보이스는 영국 아티스트의 침공 속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킨 대안 그룹이었다. 연주와 노래, 작곡을 직접 하는 밴드로 리더인 브라이언 윌슨은 천재적 뮤지션이라는 평을 받는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Surfin' USA'로 대표되는 초기 서프 사운드가 그들의 전부로 보일 테지만 그들의 두 번째 음악 시기가 할 수 있는 1966년 이후의 작품들은 초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최고작으로 뽑히는 [Pet Sounds] 앨범은 최고의 실험정신을 보여준 앨범으로 음악 잡지 『롤링 스톤(Rolling Stone)』이 뽑은 최고의 명반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롤링 스톤스 The Rolling Stones

영국 • 1964년 1집 앨범 [The Rolling Stones]

1962년 4월 영국 런던에서 믹 재거(Mick Jagger), 키스 리처즈(Keith Richards) 등 6명의 멤버로 시작한 롤링 스톤스는 매니저인 앤드류 루그 올드햄(Andrew Loog Oldham)의 제안으로 단정하고 산뜻한 느낌의 비틀즈와 대조적으로 거칠고 퇴폐적인 콘셉트를 잡고 1964년 6월 미국에 데뷔하였다. 1965년 앨범 [Out of Our Heads]의 수록곡 '(I Can't Get No) Satisfaction'이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는데, 이 곡은 미국의 케이블 음악 채널 VH1에서 조사한 20세기 최고의 록 음악으로 뽑히기도 했다. 1969년 미국순

회 공연을 개최하는 중에, 경호를 맡았던 헬스 엔젤스(Hells Angels, 오토바이 폭주족)의 일원들이 공연을 보러 온 흑인 청년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한동안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며 미국 공연이 금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후에도 멤버들이 돌아가며 사고를 치는 등 구설수에 끊임없이 오르내렸지만, 완성도 높은 곡과 대담한 공연 퍼포먼스로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록그룹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록앤롤 명예의 전당(Rock And Roll Hall Of Fame), 2004년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UK Music Hall Of Fame)에 헌액되었다.

핑크 플로이드 Pink Floyd & 시드 배럿 Syd Barrett

영국 • 1967년 1집 앨범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특정 콘셉트를 가지고 실험주의 추구) 그룹 중에서는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밴드로 원래 사이키델릭 록(Psychedelic Rock, 환각적인 분위기의 환란한 음악) 그룹으로 출발했다. 1965년 시드 배럿을 주축으로 결성된 핑크 플로이드지만, 2집 앨범을 발표한 후 분열적 정신 질환을 이유로 배럿은 탈퇴하게 된다. 그는 오늘날까지 신비로운 인물로 기억되는데 그가 주도한 데뷔 앨범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앨범의 타이틀은 영국의 아이들 대상 동화책의 첩터 이름을 따왔다.)에는 배럿의 자유로운 정신세계와 예술적 기질이 엿보임과 동시에 영국 최초의 사이키델릭 록 음반으로 평가된다.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에는 늘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적 병리 현상, 현대사회의 이념적 갈등, 전쟁에 대한 견해 등이 있다.

벨벳 언더그라운드

The Velvet Underground

미국 · 1967년 1집 앨범 [The Velvet Underground & Nico]

1964년 보컬 루 리드(Lou Reed)를 주축으로 결성된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독특한 아방가르드 음악을 연주하다가 여러 번 클럽에서 쫓겨나곤 했는데 이 모습을 본 미국 팝아트 아이콘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며 그들에게 자신의 작업실에서 연습하도록 권유한다. 당시 워홀의 작업실을 방문했던 독일 모델 니코(Nico)를 밴드 멤버들에게 소개하며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데뷔 앨범 [The Velvet Underground & Nico]가 탄생한다. 이 앨범의 자켓 디자인은 앤디 워홀의 바나나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특한 가사, 격렬하면서도 난해한 사운드, 비트 정신 등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상징이다.

도어즈 The Doors

미국 · 1967년 1집 앨범 [The Doors]

196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밴드로 첫 앨범에 수록된 'Light My Fire'가 대히트를 치며 단숨에 스타 밴드로 등극한다. 리더이자 보컬인 짐 모리슨(Jim Morrison)은 무대 위에서 기행으로도 유명한데 공연 중 바지를 내린단다가 자위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 전매특허였다. '도어즈'라는 이름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수필집 『인식의 문(The Doors of Perception)』에서 영감을 얻어 붙였다. 문학도가 되고 싶어 한 짐 모리슨의 영향으로 도어즈의 노랫말들은 시구 같다는 인상을 준다. 독특한 점은 베이스 주자가 없고 오르가니스트가 있어 특유의 독특한 음색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록의 시대: 저항과 실험의 카타르시스』, 알렉 디스테르 저,

성기완 번역, 시공사, 1996

『Paint it Rock』 1, 2, 3, 남무성 저, 북폴리오, 2014

『광기와 소외의 음악, 또는 핑크 플로이드로 철학하기』,

조지 A. 라이시 외, 생각의 힘, 2018

『20세기 이야기』 김정형 저, 답다, 2014

그레이트풀 데드 Grateful Dead

미국 · 1967년 1집 앨범 [The Grateful Dead]

리더 제리 가르시아(Jerry Garcia)를 주축으로 1965년 결성된 그룹으로 재즈의 즉흥연주 방식을 채용한 자유분방한 연주로 유명하다. 사이키델릭 록을 연주하는 밴드인 만큼 멤버들 자신도 과다한 환각제 사용을 일삼았고 그중 두 명이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2004년 『롤링 스톤(Rolling Stone)』이 뽑은 '역대 최고의 아티스트 100선(The 100 Greatest Artists Of All Time)'에서 57위에 올랐다.

플라스틱 피플 오브 더 유니버스 The Plastic People of the Universe (PPU)

체코 · 1972년 첫 앨범 [Muž bez úš] (live)

체코 프라하에서 1968년부터 활동한 언더그라운드 록 밴드로 미국의 벨벳 언더그라운드(Velvet Underground)와 음악가 프랭크 자파(Frank Zappa)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플라스틱 피플 오브 더 유니버스(이하 플라스틱 피플)'라는 팀 이름도 프랭크 자파가 속해 있던 밴드의 노래 '플라스틱 피플(Plastic People)'에서 따온 것이다. 밴드 멤버 외에도 당시 체코의 반체제 운동가이자 시인인 이반 이로스(Ivan Jirous)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당시 공산주의 체제였던 정부에서 많은 검열과 감시를 받았고, 급기야 1976년에는 이로스를 비롯한 플라스틱 피플 멤버들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벨을 비롯한 개혁파 지식인들은 체제 개혁을 주장하는 '77헌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훗날 일명 '플라스틱 재판'으로 불리며 체코민주화운동의 한 단락으로 기억된다. 해외 이주를 강요받는 등 정부의 계속되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음악세계를 이어 갔던 플라스틱 피플은 여러 사정상 해체하였다가, 1997년 하벨의 제안으로 '77헌장' 20주년을 기념하여 재결합하였고, 올해 결성 50주년을 맞아 공연을 개최하였다.

| | 세 계 | 체 코 |
|-------|------|--|
| 타임 라인 | 1945 | • 소비에트연방군 프라하 주둔 |
| | 1946 | |
| | 1947 | |
| | 1948 | |
| | 1949 | |
| | 1950 | |
| | 1951 | |
| | 1952 | |
| | 1953 | |
| | 1954 | |
| | 1955 | • 바르샤바조약기구 체결 (동구권 사회주의 8개국 군사동맹조약) |
| | 1956 | |
| | 1957 | |
| | 1958 | |
| | 1959 | |
| | 1960 | |
| | 1961 | |
| | 1962 | |
| | 1963 | • 개혁 성향의 지식인들이 경제문제 공론화 |
| | 1964 | • 예브게니 쉘루초키 |
| | 1965 | |
| | 1966 | |
| | 1967 | • 제4차 작가동맹대회 개최(경제, 사회, 정치 비판) |
| | 1968 | • 프라하의 봄(민주자유화운동) |
| | 1969 | • 공산당 제1서기로 알렉산데르 뒤체크 취임 |
| | | • 바르샤바조약기구 프라하 점령 |
| | | • 공산당 제1서기로 구스타우 후사크 취임 |
| | | • 개혁파 숙청 실시 |

음악

<록앤롤 Rock 'N' Roll>

1945

1946

1947

1948

• 영국으로 떠났던 안의 가족, 체코슬로바키아로 복귀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
'프라하의 봄' 장면

1956

• 엘비스 프레슬리 데뷔

1957

1958

1959

• 제1회 그래미 어워드 개최 • 클리프 리처드 데뷔

1960

1961

• 비치 보이스 데뷔

1962

1963

• 비틀즈 데뷔 • 키 보이스(한국 최초 록밴드) 결성

1964

• 롤링 스톤즈 데뷔 • 퍼그스 데뷔

1965

1966

• 도어즈 데뷔

• 안, 영국 유학

1967

• 핑크 플로이드 데뷔 • 벨벳 언더그라운드 데뷔
• 그레이트풀 데드 데뷔 • 지미 헨드릭스 데뷔

1968

• 딥 퍼플 데뷔 • 시드 배럿, 핑크 플로이드 탈퇴
• 더 플라스틱 피플 오브 더 유니버시티 데뷔(체코)

• 안, 케임브리지에서 프라하로 돌아옴

1969

• 레드 제플린 데뷔

• 안에게 둠체크를 위한 서명을 요청하는 페르디난드

세계

체코

1970

1971

1972

- 10월 유신(한국)

1973

- 제1차 오일쇼크

1974

1975

1976

1977

- 지식인 '77헌장(민주화 선언문)' 발표

1978

1979

-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취임 • 12.12 쿠데타(한국)

- '77헌장'에 서명한 바츨라프 하벨 등의 저항주의 작가들 구속

1980

- 이란·이라크전 발발 •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한국)

1981

1982

1983

1984

-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출간

1985

-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

1986

- 체르노빌 원전 화재(소련)

1987

- 6월 민주 항쟁(한국)

1988

1989

- 천안문사태(중국) • 베를린 장벽 붕괴(독일)

- 벨벳 혁명(민주주의로 체제 전환)

1990

- 동·서독 통일 • 걸프전 발발

- 바츨라프 하벨 초대 대통령 취임

1991

- 소비에트 연방 해체 •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으로 국명 변경

1992

1993

- 유럽연합(EU) 출범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분리 독립

1994

음악

<록앤롤 Rock 'N' Roll>

1970

- 엘튼 존 데뷔 • 비틀즈 해체 및 존 레논 솔로 앨범 발매

1971

- 마이클 잭슨 솔로 데뷔 • 크라프트베르크 데뷔

1972

- 플라스틱 오브 더 유니버스의 예술감독 이로스 구속

1973

- 퀸 데뷔

1974

- 안이 페르디난드에게 콘서트에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대한 서명을 요청

1975

-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는 안과 페르디난드

1976

- 안 구속

1977

- 안 석방

1978

1979

1980

- U2 데뷔

1981

- MTV 개국

1982

1983

- 마돈나 데뷔

1984

1985

- Live Aid 콘서트 개최

1986

1987

- 건스 앤 로지스 데뷔

1988

- 막스의 집으로 돌아온 에스메 그리고 케임브리지 입학
을 앞둔 앨리스
-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강제로 빵집에서 일해 온 안

1989

1990

- 케임브리지에서 다시 만난 안과 에스메

1991

1992

1993

1994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한 체코 민족

김장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지면상의 제약 때문에 여기서는 「록앤롤(Rock 'N' Roll)」의 주인공 안이 활동했던 1960년대 후반 즉, '프라하의 봄(Pražské jaro)' 시기를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그 이전 및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620년 빌라 호라 전투(Bílá Hora)에서 체코 귀족연합군이 페르디난트 2세(Ferdinand II)의 오스트리아군에게 패함에 따라 체코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한 지방으로 격하되었고 체코 민족 역시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하였다. 이후부터 빈 정부는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중앙집권화정책을 강력히 펼쳤고 그것으로 인해 체코어는 사회 공용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코 민족의 역사 역시 왜곡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체코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폴레옹(Napoleon)의 유럽장악에서 비롯된 민족주의는 체코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 민족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체코어의 문법적 체계 재정리 및 체코 역사의 재조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게 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존속을 인정하고 반대급부로서 그들 민족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이 가능한 연방체제의 도입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Austroslavismus)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겠다. 1848년 이후 팔라츠키(F. Palacký)를 비롯한 일련의 체코 정치가들은 이러한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를 주도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 원칙에 따라 체코 민족이 독립을 모색할 경우 당시 러시아가 지향하던 범슬라브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빈 정부가 제국 내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던 슬라브 민족의 정치적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는 형제전쟁(1866)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이후 이 제국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변형된 이후부터 그 지지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890년대 초반부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현실적 상황을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정치가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사리크(T.G. Masaryk)를 들 수 있다. 이 인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이후부터 체코 민족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당시 연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 지배하에 놓여있던 슬로바키아 민족의 대표자들과도 접촉했다.

1918년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탄생했지만, 이 공화국은 1939년 3월 16일 히틀러(A.Hitler)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동맹국 내지는 위성국이 되었다. 당시 고트발트(K.Gottwald)가 주도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짧은 시간 내에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당이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환영에 빠져있던 국민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독재체제는 독립적 권력 기구들의 견제기능을 완전히 박탈했고 소수의 지배 계층은 헌법적,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지위까지 확보했다. 당과 국가의 핵심 부서들은 노동자들로 교체되었고 내각을 비롯한 국가 요직에 임명되었던 소련 고문관 역시 초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이후부터 불법, 숙청, 그리고 체포는 공산주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독재체제로의 전환과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강제와 전횡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주도로 시행된 국유화 경제체제가 실패로 끝나게 됨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대한 정치적 문책과 더불어 과거 스탈린(J.Stalin) 체제 시기에 수립된 지나친 중앙집중적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대상으로 부각되었다. 1963년 초부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 경제에서 확인되던 구조적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기 시작했다. 같은 해 2월 경제학자 셀루츠키(Selucky)는 중앙계획경제의 효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획의 우상화'를 '개인의 우상화'로 빗대어 계획경제와 스탈린주의를 동시에 공격했다. 또한 11월에 개최된 한 경제 세미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선책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2월의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과학 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소장이었던 시크(O.Šik)가 소련경제모델 대신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크의 모델은 1964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해인 1965년 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출범된 시크의 신경제모델은 중앙의 계획경제를 대폭적으로 제한하고 생산, 투자, 가격, 그리고 임금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했다. 그리고 시크는 자신의 모델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생산 및 가격의 결정, 이윤의 추구하고 임금의 차등화라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했다.

1967년 6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4차 작가동맹대회에서 쿤데라(M. Kundera)와 클리마(I.Klima)를 비롯한 일련의 작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기 사안이었던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비난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10월에 접어

◆ 1806년 12월 7일 오스트리아 왕국은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이 제국에는 독일 민족, 헝가리 민족, 그리고 체코 민족을 비롯한 슬라브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 오늘날 이 인물은 체코 민족의 국부(otec národa)로 추앙되고 있다.

◆◆◆ 마사리크는 신생 체코슬로바키아에 옛 체코 왕국의 영역에다 독일인들의 집단 거주지역과 슬로바키아 지방을 포함시켰다.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민족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사리크가 이렇게 양 지방을 신생독립국가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은 안보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를 신생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 같다.

들면서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도 펼쳐졌는데 그것은 스트라호브(Strahov)기숙사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당시 동유럽의 맹주국이었던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소련 공산당 제1서기 브레즈네프(L.Breschnev)는 1967년 12월 8일 극비리에 프라하를 방문하여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였던 노보트니(A.Novotný)와 독대를 펼쳤는데 여기서 그는 노보트니에 대한 그의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프라하 체류 중에 브레즈네프는 둠체크(A.Dubček)를 비롯한 일련의 인물들과 접촉했는데 여기서 그는 소련에서 성장하고 러시아어에 능통한 둠체크에 대해 큰 호감을 표시했다. 브레즈네프의 프라하 방문 이후 노보트니는 결국 실각했고 그 후임으로 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였던 둠체크가 1968년 1월 5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로 취임했다.♦♦

그러나 둠체크에 대한 브레즈네프의 기대와는 달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공토론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정보 자유도 확대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즉 1968년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개혁운동(reformní hnutí)으로 검열제도는 폐지되었고, 이전의 정치적 실책들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재건되었고, 새로운 사회단체들도 탄생했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교체 및 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었고, 3월 말에는 스보보다(L. Svoboda)를 대통령으로, 스무르크프스키(J. Smrkovský)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내각도 개혁파인 체르니크(O.Černík)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파의 노보트니는 당과 정부 양쪽에서 실권하게 되었고, 체코 사회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프라하의 봄(Pražské jaro)'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개최된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파격적인 행동강령도 제정되었는데 거기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socialismus s lidskou tvář)'를 지향한다는 것과 공산당의 권력 독점도 포기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체제는 민주적 사회주의체제의 새로운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부분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은 자신들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24일 체르니크의 프라하 정부는 일련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검열제도의 폐지, 숙청된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작업, 여행의 자유, 그리고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개혁 시도에 대해 소련 및 그 위성국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1968년 5월 8일 바르샤바(Warsaw) 동맹국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물론 이 회의에는 둠체크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거의 같은 시기 소련과 그의 바르샤바 동맹국들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참모훈련도 실시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무력적인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바르샤바 동맹국들의 압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의 저명한 지식인 70명이 서명한 '2,000단어 선언(Dva tisíce 2,000 slov)'이 공개되었다. 여기서의 정부 개혁이 아직까지 사회의 하부구조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공산주의체제의 문제점들도 거론되었는데 그것에 따를 경우 공산주의체제가 도입된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정신적, 물질적인 퇴보만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정치적인 퇴행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명에 대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과 프라하 정부는 부정적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8월 21일 소련, 폴란드, 동독, 헝가리, 그리고 불가리아 군으로 구성된 바르샤바 동맹군 500,000명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침범했는데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반혁명적 요소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에서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범에 대해 프라하 정부는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국권침해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하예크(J. Hájek)는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동맹국의 자국 침입 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시키면서 '무력사용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Act of use of force which cannot be justified by any reason)'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제 14차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전당대회가 8월 22일 프라하의 비소차니(Vysočany)에 있는 체카데(ČKD), 즉 체코슬로바키아 콜벤-다네크(Československá Kolben Daněk) 기계공장에서 개최되었다. 모두

1,200명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한 비상 전당대회는 둠체크의 정책을 계속 지지한다는 것과 소련과 그의 동맹국들의 침공에 대한 부당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8월 23일 둠체크를 비롯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은 모스크바로 압송되었고 거기서 이들은 소련의 요구들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련은 14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사안들의 무효화, 검열제도의 재도입, 그리고 바르샤바 동맹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주둔을 요구했다.

1969년 4월 17일 소련의 신임을 받던 후사크(H. Husák)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로 등

◆ 실제로 대학생들의 기숙사는 정전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녁에는 공산당 지침에 따라 전기가 강제로 차단되어 학생들의 불만은 매우 높은 상태였다.

◆ 둠체크는 4살부터, 즉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소련에서 살았는데 1933년부터는 기계조립공으로 활동했다. 슬로바키아로 돌아온 그는 1939년 슬로바키아 공산당에 가입했고 그 이후부터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켰다.

◆◆ 원래 프라하의 봄은 체코 필하모니 결성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46년부터 매년 5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음악제의 이름이었다.

장했다. 이에 따라 소위 반동(reakce)과 반혁명(kontra revoluce)의 시기가 가고 '진정한 사회주의(reálného socialismu)'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실시된 대규모 숙청(hromadné čistky)은 1971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 5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당원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군 지도부의 17%와 경찰 간부의 30% 정도가 교체되었다.

공산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 붕괴되었는데 이것은 냉전의 상대방인 서방으로부터의 공격과 같은 무력이 아닌, 즉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압력이 아닌 자체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에는 그 체제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적 타락도 일조했다. 공존과 공생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이 사라지고, 상호 간을 감시하거나 흠쳐야 하는 인간성 파괴라는 상황 하에서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파생된 후유증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것들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5년 3월 11일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된 고르바초프(M. Gorbatschow)가 개혁(perestrojka)과 개방(glasnost)정책으로 공산주의체제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것은 1989년 동유럽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도화선으로도 작용했다.

동유럽 공산주의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혁명적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1989년 12월 29일 그동안 반체제 활동을 주도한 하벨(V. Havel)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의 대통령(Česká a Slovenská federativní republika)으로 선출됨에 따라 40년간 유지된 공산주의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웃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혁명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하여 '벨벳 혁명(Sametová revoluce)' 혹은 '비단혁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이 혁명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오랜 전제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했으며, 국가명도 기존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Československá socialistická republika: ČSSR)대신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Česka a Slovenská federativní republika: ČSFR)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출발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1992년 7월 3일에 실시된 연방의회의 대통령선거에서 슬로바키아 대표들이 체코 측이 내세운 하벨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고 그것에 따라 하벨이 7월 20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92년 11월 25일 연방의회는 체코슬로바키아(Československo)를 다음 달 12월 31일에 해산하기로 의결했고, 이보다 앞서 1992년 9월 3일 슬로바키아 민족회의가 독립슬로바키아 공화국 헌법을 채택한 데 이어 체코민족회의 역시 1992년 12월 16일 체코공화국의 헌법(Sbírka zákonů České republiky)을 승인했다. 1993년 1월 1일자로 유럽의 지도에는 체코공화국(Česká republika: ČR)과 슬로바키아공화국(Slovenská republika: SR)이 새로운 독립국가로 등장했다.

정치·사회

[러시아]

볼셰비키 Bolsheviki

1903년, 블라디미르 레닌(V. Lenin)으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분파이다. 폭력에 의한 혁명, 철저한 중앙집권에 의한 조직 통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은 이후 소비에트 연방까지 연결되었다. 소련을 포함한 유럽 내에서 공산당 지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2월 혁명 February Revolution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당시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 등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극도의 생활고에 힘들어하다 식량 배급의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페트로그라드 공장위원회’는 이 시기에 생겨난 공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협의회다.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 Russian Revolution

1917년 레닌의 지도하에 러시아 볼셰비키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 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이 혁명으로 볼셰비키의 권력이 집중되어 러시아 내전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Soviet Union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에 위치한 최초의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존재하였다. 원래 소비에트라는 말은 평의회·대표자 회의를 의미하는 러시아어였지만, 2월 혁명 때에 노동자·군대·농민 대의원 소비에트가 형성된 후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국가 제도로 확대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재건, 재편- 러시아어) Perestroika

고르바초프(M. Gorbachev)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후 실시한 개혁정책으로, 소련뿐 아니라 세계 정치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다. 기본 특징은 헌법·사법·행정개혁, 공산당과 소비에트의 기능 분리 등 정치개혁, 대통령 권력 강화, 시장 경제화, 동·서 상호의존체제 확립 등이다.

블라디미르 레닌 Vladimir Lenin 1870-1924

러시아에서 태어난 레닌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창설자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중심 인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이오시프 스탈린 Joseph Stalin 1879-1953

레닌에 이어 소련의 제2대 서기장으로 임명되자,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가장 가난한 농업 국가 중 하나였던 소련을 산업화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발판을 만들었다. 소련 붕괴 이후 공산주의의 변질을 야기한 독재자로 평가되었으나 곧두박질치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다시 스탈린을 지지하는 네오-스탈린주의(Neo-Stalinism)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1931-

1985년 소련 제8대 서기장 취임 후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여 소련뿐 아니라 동유럽 민주화 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무혈 민주화 운동인 ‘벨벳 혁명’도 이러한 소련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 되었다. 소련 붕괴 후 최초의 대통령에 선출 되었으며 1990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체코]

프라하의 봄 Pražské jaro(체코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간섭이 심화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68년 일어난 민주자유화운동이다. 1968년 1월 개혁파 정치가 둠체크(A. Dubcek)가 집권한 후 민주화를 추진하며 시작되었으나 같은 해 8월 소련의 불법 점령으로 인해 막을 내렸다.

77 헌장 Charta 77

강력한 공산주의 정책을 펼쳤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77년 일어난 반체제 운동을 상징하는 문서로, 훗날 체코의 대통령이 된 바츨라프 하벨(V. Havel)을 비롯한 지식인이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원문 전체를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출판되어 해외 여러 언론에 공개되었다.

벨벳 혁명 Sametová revoluce(체코어)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비폭력 혁명으로, 이로 인해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다. 1985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동유럽 공산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도 혁명 운동 바람이 불었는데 이웃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달리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하여 '벨벳 혁명'으로 일컫는다.

존 레논 John Lennon 벽

체코 프라하에 있는 벽으로 본래 몰타 공화국 대사관 담이었다. 공산주의 시절, 체제를 반대하는 체코인들이 이 벽에 반정부 구호를 적고 평화를 외쳤는데, 몰타 공화국 대사관은 이를 '표현의 자유' 인정하여 지우지 않았고, 체코 공산 정권도 치외 법권에 해당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기에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특히, 비틀스(The Beatles) 멤버 존 레논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부른 'Imagine'과 'Mind Games' 등의 가사가 많아, '존 레논 벽'으로 불리며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알렉산더 둠체크 Alexander Dubcek 1921-1992

개혁파 정치가로 1968년 공산당 제1서기가 되었다.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체코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다가 약 8개월 만에 실패하여 해임된 후 당에서 추방되었다.

구스타우 후사크 Gustav Husak 1913-1991

'프라하의 봄' 개혁 운동이 실패하자 둠체크를 이어 공산당 제1서기로 임명되었다. 소련에 우호적인 보수파로서 개혁파 정치인과 예술가 등을 강력히 진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1989년 '벨벳혁명'으로 인해 해임되었다.

바츨라프 하벨 Václav Havel 1936-2011

극작가이자 슬로바키아와 분리된 체코의 제1대 대통령이 다. 예술가로서 다양한 개혁 운동에 힘썼는데 1975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후사크에게 정치 탄압에 맞서는 공개편지를 쓰고, '77헌장'에 참여했으며, '벨벳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록앤롤 Rock 'N' Roll>의 런던 초연을 관람하였고 작가 톰 스토파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인권 운동 및 예술가 지원에 힘썼다.

[영국]

런던 스트리트 코뮌 London Street Commune

1960년대 런던에서 형성된 급진적 공동체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운동 코뮌에서 유래했다. 이들의 주목적은 늘어가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이었는데, 1969년 피카딜리(Picadilly) 거리의 건물에서 약 500여 명의 노숙자와 머물며 협상을 시도하다가 경찰과의 격렬한 대치상황을 벌였다.

토리당 Tory Party

영국 잉글랜드의 왕권 옹호를 위해 1679년 세워진 정당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력이 약해졌지만 18세기 말부터 보수적 풍조에 힘입어 정권을 주도했다. 강한 보수주의적 성향

으로, 영국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의미로 ‘토리’라는 단어를 빗대어 사용하기도 한다.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 1925-2013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총 3기를 연임하며 영국 사상 최장기로 집권하였다. 보수파로서 신자유주의와 반공주의를 추구하였으며, 긴축재정으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 운영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린다.

[독일]

카를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이다. 1847년 공산주의자동맹을 창설했고,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론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정치가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으로 확대되었다.

[사상]

사회주의 Socialism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이익을 사회 기반으로 삼는 사상을 일컫는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공산주의 Communism

자본가 계급이 소멸되고,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 기반을 둔 무계급 사회 조직을 목표로 하는 정치 운동으로, 사회주의로부터 발전되었다. 마르크스는 사회

주의가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이론이라면, 공산주의는 사소유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공산주의와 함께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정치 이론으로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관리에 의한 사회 개조를 민주주의적으로 추구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지닌 ‘개인주의’에 있다고 보고, ‘개인주의’의 반대 원리, 즉 ‘사회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막시즘) Marxism

독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기초가 다져진 사회주의 사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도 한다. 이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철학 분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구조와 운동법칙 등이다. 레닌은 이를 계승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창시하였다.

파시즘 Fascism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B. Mussolini)가 주도한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국수주의적인 정치적 사조를 말한다. 개인의 자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평등을 부정하며 불평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유발돼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지자들의 성향이 우파 쪽으로 쏠리면서 점차 극 반공주의 및 극우적 사상으로 변질되었다.

나치즘 Nazism

파시즘에서 인종주의 더해 분파된 국민사회주의 혹은 민족 사회주의다. 독일 노동당 정부에서 히틀러(A. Hitler)를 중심으로 강력한 ‘동일 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유대인 사살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행되다가 히틀러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현대에는 과거의 나치즘 사상을 수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타 인종을 배척하려는 네오-나치즘(Neo-Nazism)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나키즘 Anarchism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자가 없는 상태 즉,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계급제를 반대하고 절대적인 자유가 행하여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기타]

히피 Hippie, Hippy

19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주체로 하여 시작된 탈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미국 전역 뿐 아니라 유럽까지 파급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에 관심

을 가지고, 진부한 물질문명에 대해 분노하며, 록 음악에 심취하고, 향의집회에 적극적이며, 자유를 위해 노력한다. 상징은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비폭력적인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폭력과 억압에 저항한다는 의미다.

여피 Yuppie

'젊은 도시 전문직(young urban professional)'의 약자로, 대도시를 거주 및 직장으로 삼으면서 대학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고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성인을 말한다. 처음에는 현대 도시 청년의 풍조를 비판하기 위한 용어였으나, 점차 진보적이고 정치의 개혁을 바라는 새로운 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문 · 문학

판 신 Pan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원의 신으로. 뿔, 수염, 꼬리, 염소 다리의 모습으로 태어나 반인반수의 이미지로 유명하다. 자고 놓고 쉬는 것을 좋아해 이를 방해받을 경우 무섭게 응징하였는데, '공포'를 뜻하는 영어 패닉(Panic)이 바로 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판 신은 또, 성(性)적으로도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요정들이 노는 것을 엿보다 마음에 드는 요정이 생기면 겁탈하려 했는데, 어느 날 요정 시링크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도망가다가 힘에 부친 시링크스는 신에게 기도하여 갈대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자 판은 그 갈대를 꺾어 불어 파이프를 만들어 불었고, 이러한 일화 때문에 음악의 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판이 연주했던 목관 악기는 현재까지도 전해지는데, 요정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 혹은 판이 부르는 파이프라 하여 '팬파이프'라고 한다.

극 중 등장하는 록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스튜디오 데뷔 앨범 제목은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새벽의 문

에서 있는 피리 부는 사람)]인데 이 앨범은 유일하게 시드 배럿이 그룹의 리더로서, 대부분의 곡을 썼던 앨범이다. 이후 시드 배럿은 약물중독으로 인해 팀을 탈퇴하게 된다. 앨범 제목은 영국 작가 케네스 그레이엄(Kenneth Grahame)의 동화 『The Wind in the Willows(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의 7장 소제목에서 따왔다. 이 7장에는 어린 동물들을 구하고 돌봐주는 역할로 판 신이 등장한다.

사포 Sappho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은 섬 레스보스에서 귀족가문의 딸로 태어난 사포는 그리스의 대표적 서정시인으로 서사시의 대가 호메로스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서정적 언어로 뛰어나게 표현하여 철학자 플라톤은 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여신인 뮤즈에 빗대어, 사포를 '10번째 뮤즈'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포는 귀족 집안의 어린 소녀들에게 음악과, 시, 무용 등

Amachanon, 사포, 하벨, 그리고 록앤롤

공연의 초반 엘레나는 제자 질리언에게 사포의 시에 나오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묘사하는 ‘amachanon’라는 단어는 a+machanon(기계적이지 않은), 즉 ‘(기계처럼) 통제할 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작가 톰 스토파드가 역시 작가이자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츨라프 하벨의 철학-하벨은 그의 글에서 전문가들은 객관적 세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직접 경험하는 삶으로써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 을 잘 요약하고 있다. 사포가 강조하는 영혼은 이성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다.

극의 중반 철학적 유물론자인 막스가 사포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일종의 물리적 증상으로 치환시키려 하자 암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엘레나는 소리친다.

“내 몸이 나한테 말하고 있어. 내 몸이 다 망가지고 없어져버리고 나면 난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근데 당신도 아닌 척하면서 결국 나한테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 (중략) 난 내 몸이 아니야. 내 몸도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이 없어졌다고 내가 없어진 건 아니야.”

막스는 돌연 깨닫고 이 깨달음은 소련의 체코 공습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조금씩 흔들며 마침내 체코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한 양의 행동을 이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을 가르치며 많은 시를 썼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친구, 연인이었다. 여성동성애자를 일컫는 ‘레즈비언(lesbian - ‘레스보스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말도 사포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그리스에서는 존경받는 학자, 시인들이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온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관례였고 정신적인 교류와 함께 스승-제자 간의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단, 이런 관계가 대부분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었으나 레스보스섬에서는 사포를 주축으로 여성들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여성은 고매한 정신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당

참고문헌

『주제로 들여다본 체코의 역사』 김장수 저, 아담북스, 2013
『신화 인간을 말한다』 김원익 저, 바다출판사, 2011
『인명사전』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저, 민중서관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 <https://www.ic.org/>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예스24 <http://www.yes24.com/>
매경닷컴 매일경제중앙사전 <http://www.mk.co.kr/>
체코관광청 <https://www.czechtourism.com/>
『Reading Václav Havel』 David S. Danaher 저,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5

시의 관념을 깨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의 시는 카툴루스, 오비스, 호레이스 등 로마의 대표적인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중세 기독교에서는 그의 시가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시 다수를 분서하였다-그의 많은 시들이 소실되어 현재는 단 650행만, 그것도 온전한 1편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들은 모두 파편적으로 전해진다.

선(禪)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전체 명칭은 『선(禪)과 모터사이클 관리술-가치에 대한 탐구(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An Inquiry into Values)』로 1974년 미국 작가 로버트 메이너드 피어시그(Robert Maynard Pirsig)의 대표작이다. 독특한 내용의 이 책은 과거 정신병 경험을 가진 아버지와 정신병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11살 아들이 17일간 펼친 모터사이클 여행의 기록이자 가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서다. ‘모터사이클의 관리술’부터 ‘과학과 종교와 인문주의가 망라된 철학적 탐구’까지 치달는 이 위대한 소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거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다.







스태프

프로필

작 — 톰 스토포드 Tom Stoppard

프로필_04페이지

연출 — 김재엽 Kim Jae-yeop

프로필_03페이지

번역 — 손원정 Son Won-jung

연극 [번역] 〈1984〉〈애들러와 깃〉〈하이젠베르크〉〈잔인하게, 부드럽게〉〈구름 한가운데〉〈디 오써〉 외
[드라마투르기] 〈고발자들〉〈김씨네 편의점〉〈널 위한 날 위한 너〉〈가자〉〈이건 로맨스가 아니야〉〈옹비여천가〉〈맨 끝줄 소년〉〈내 가장롱롱메롱문열었을때〉〈썬샤인의 전사들〉〈생각나는 사람〉〈말들의 무덤〉〈엘렉트라 파티〉〈그 샘에 고인 말〉〈템페스트〉〈천국으로 가는 길〉〈영원한 평화〉 외

무대 — 서지영 Seo Ji-young

프로필_18페이지

조명 — 최보윤 Choi Bo-yun

연극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알앤제이〉〈댄스시어터, 죽고싶지않아〉〈피와 씨앗〉〈나는 살인자입니다〉〈목란언니〉〈나무위의 군대〉〈알리바이 연대기〉〈투명인간〉〈히스토리 보이즈〉〈나는 나의 아내다〉〈그을린 사랑〉 외

뮤지컬 〈꼰빠이, 이상〉

음악 〈김광민 콘서트〉〈혁오 콘서트 '23〉〈최백호 40주년 기념 콘서트〉〈이적 소극장 콘서트 '무대'〉〈한승석&정재일 '바리abandoned'〉〈비빙 '이중공간'〉〈비빙 '피-뽀-P project'〉

수상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제3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테프상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의상 — 오수현 Oh Soo-hyun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페스트〉〈줄리엣과 줄리엣〉〈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외

음악 — 한재권 Han Jae-kwon

연극 〈매직타임〉〈박수 칠 때 떠나라〉〈텍시 드리벌〉〈체크메이트〉〈서울노트〉〈알리바이 연대기〉〈찬정영마와 2박3일〉〈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슬픈 인연〉〈날보러 와요〉〈생각은 자유〉〈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애도하는 사람〉 외

뮤지컬 〈판타스틱스〉〈The Moon〉〈The Good〉〈오즈의 마법사〉

분장 — 이지연 Lee Ji-youn

연극 〈말들의 집〉〈괭이지 아카이브〉〈줄리엣과 줄리엣〉〈애도하는 사람〉〈아라비안나이트〉 외

뮤지컬 〈동동〉〈마이버킷 리스트〉〈적벽〉〈핑크퐁 상어가족〉 외

소품 — 서정인 Seo Jeong-in

연극 〈비명자들2〉〈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혈우〉〈빨간시〉〈꿈하늘〉〈불량청년〉〈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스카이 라잇〉〈갈잡이〉〈에이미〉〈민중의 적〉〈삼국유사 프로젝트〉〈꿈〉〈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콜라소녀〉〈인형의 家〉〈황구도〉〈돌날〉〈코볼소의 사랑〉〈오장군의 발톱〉〈마라사드〉 외
뮤지컬 〈책갈피요정 도보〉〈한여름 밤의 꿈〉〈소금〉〈아리둥둥 시장가는 길〉〈에릭사터〉

영상 디자인 — 정병목 Jung byung-mok

연극 〈오렌지 북극곰〉〈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배수의고도〉〈터미널〉〈게임〉〈고제〉〈썬샤인의 전사들〉〈인터넷이즈씨리어스비즈니스〉〈히스토리보이즈〉〈해야된다〉〈비행소년kw4839〉〈삼풍백화점〉〈노란봉투〉〈차이메리카〉〈국부〉 외

영상 기술 — 윤민철 Kennikie Yoon

청운대학교 융합디자인학부 무대예술전공 교수

연극 〈평룡〉〈인어〉〈아빠사우르스〉〈두개의 방〉〈나는야 연기왕〉〈코리올라너스〉〈글로리아〉〈갈매기〉〈당신의 손〉〈게임〉〈히스토리보이즈〉〈빛의 제국〉〈신과 함께 가라〉〈차이메리카〉〈안나볼레나〉〈비행소년〉〈코시판뚜떼〉〈어쩌면 해피엔딩〉 외

수상 2014 제2회 서울연극인대상 음향·영상부문

조연출 — 박예슬 Park Ye-seul

연극 [작·연출] 〈로봇캡슐김왕팡〉

[윤색·배우·조연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조연출] 〈오멜로〉

음악극 [연출] 〈더 하랑 콘서트〉

악극 [조연출] 〈계비고개〉〈불매〉 외

조연출 — 이홍익 Lee Hong-ik

연극 [배우] 〈하모니카〉〈3STORY〉〈다섯 손가락〉〈세대공감〉〈묘비명〉〈하모니카〉〈구름〉〈날좀보소〉〈도우〉

만드는
사람들

출연

막스 강신일
안 이종무
엘레나 장지아
에스메 정세별

나이젤 정원조
렌카 양서빈
페르디난드 김한
밀란 최지훈

질리안, 마그다, 캔디다 강해진
앨리스 이다혜
스티븐, 피리부는 남자 김세환

스태프

작 톰 스토파드
번역 손원정
연출 김재엽

무대 서지영
조명 최보윤
의상 오수현
음악 한재권
영상 정병목
분장 이지연
소품 서정인
음향 이병석
영상기술 윤민철

무대디자인 보 이수현
조명디자인 보 이명진
의상디자인 보 김혜란 김은영
음악감독 보 신현필 조충만
영상디자인 보 송수빈
조연출 박예슬 이홍익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승철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김채원
음향오퍼레이터 박상준

영상오퍼레이터 김지수
무대진행 나혜민 한동찬 김민주
의상진행 전요나 신은혜
분장진행 허정윤 김지수

무대제작 처음무대
회전무대협력·대도구제작 쇼앤아트
의상제작 메리엘
소품제작 서가인테리어
조명팀 서승희 김소현 최인수 임영민 임효섭
원유찬 유승열 손은영 박혜림 이상민
유보민
의상팀 서광채 곽영희 최미림 허인선
음향팀 고태욱 황대환
소품팀 이정연 이상훈
음악녹음 이효섭 Moon Studio
영상 프로그래밍 임유정 김석기 박효진
조명장비협력 (주)루스케이프
영상장비협력 인터렉션랩

홍보·마케팅 총괄 정웅성
홍보 이정민 오지수
마케팅 김효진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이승이 소여진
대학생서포터즈·극단적 낭만인 5기 김정민
김희지 문수빈 손은정 이승희 허정원

그래픽디자인 써니아일랜드
응용디자인 라프트
광고영상 602 STUDIO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프로젝트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물인쇄 써니아일랜드
홍보·연습·공연 사진 나승열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

프로그램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보연
매표안내원 김인혜 허수련 이준원 이은지
김다애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백가현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혜빈
김형태 김민주 임예은 손유희 권령아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김주영 김지호 이신영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심소연
제작진행 이은지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 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근 공연자료 관리 | 김소연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김소현 이아름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김효진 이승아 마케팅 | 오지수 이정민 홍보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관리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소여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최솔기 홍영진 무대제작감독 | 임채호 무대기계 | 박지수 무대의상 |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 김시내 예술감독 비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권은지 연수단원

2018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 한 주인영 장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세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웅



박경주

〈성〉 〈운명〉 〈호신술〉



홍아른

〈성〉 〈운명〉
〈오렌지 북극곰〉



임준식

〈성〉 〈페스트〉 〈오슬로〉



정세벌

〈성〉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록앤롤 Rock 'N' Roll〉



김수아

〈3월의 눈〉 〈페스트〉
〈오슬로〉



이원희

〈3월의 눈〉 〈페스트〉
〈호신술〉

2018~19
국립극단 시즌단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종무

〈3월의 눈〉 〈운명〉
〈록앤롤 Rock 'N' 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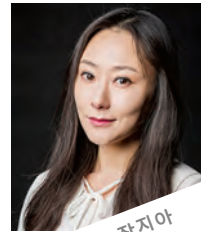
이수미

〈3월의 눈〉 〈운명〉
〈텍사스 고모〉



정원조

〈사물함〉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장자아

〈성〉 〈페스트〉
〈록앤롤 Rock 'N' Roll〉



양서빈

〈3월의 눈〉 〈운명〉
〈록앤롤 Rock 'N' Roll〉



최지훈

〈성〉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주인영

〈얼굴도둑〉 〈운명〉
〈텍사스 고모〉



김한

〈3월의 눈〉 〈페스트〉
〈록앤롤 Rock 'N' Roll〉



이호철

〈3월의 눈〉 〈얼굴도둑〉
〈오슬로〉



강해진

〈성〉 〈오슬로〉
〈록앤롤 Rock 'N' Roll〉



박가령

〈성〉 〈운명〉 〈호신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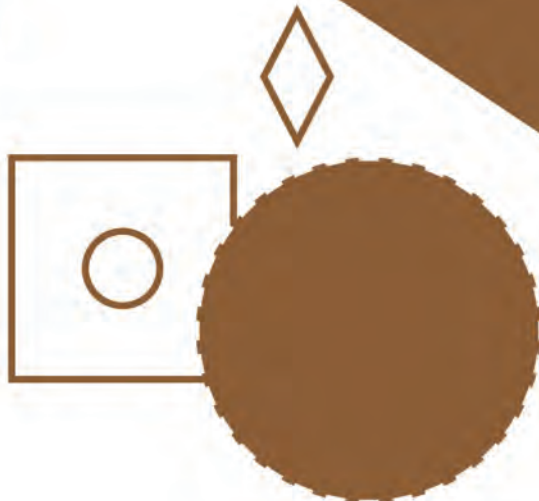
조남웅

〈3월의 눈〉 〈페스트〉
〈오슬로〉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아시아 최초의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꿈꾸다

(재)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작품 개발을 수행할 국립
연구소로 (재)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설립을 목표로 2011년 5월 2일에
출범했다.

본 연구소는 우선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청소년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작품개발 및 현장 순회공연,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사례 및 제작과정
연구 책 발간, 국제심포지엄과 이야기판,
교사 세미나, 젊은 작가·연출가·배우
육성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작은극장
프로젝트〉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 2011년 국립극단
첫번째 청소년극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노란 달 Yellow Moon〉, 〈타조
소년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비행소년 KW4839〉를 무대에 올렸다.

국립극단 작품개발실 OPEN

국립극단은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5일 작품개발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작품개발실 주요사업

창단 70주년

2020년 국립극단 창단 70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합니다.

공연

개막식과 폐막식 포함 축제 형식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전시

70년 역사를 담은 공연자료 및 영상 아카이브 전시 기획

출판

'국립극단 70년사' 발간

준비위원 김방욱 허순자 노이정 김미도 이진아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1920 ~ 1940년대에 쓰인 한국 우수희곡을
찾아내 무대화 합니다.

2018년 공연 예정작

<운명> 작 윤백남 연출 김낙형

<호신술> 작 송영 연출 윤한솔

자문위원 양승국 이상우 김명화 김옥란 김남석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대동굿 등
한국 연극의 원형을
동시대적 연극으로 현대화 합니다.

공연 2018. 9.30

장소 국립극단 서계동 마당 외

연희감독 김학수

자문위원 신선희 손진책 이미원 김학수 안대천

희곡 우체통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산작 희곡을 찾습니다.
누구나 인제는 온라인으로 희곡을 투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작품은 수시 희곡낭독회에 초대됩니다.

접수처 playpost@ntck.or.kr

우체국장 조만수

운영위원 심재찬 정명주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극단의 지난 70년간 400여 작품에 달하는
공연자료를 한데 모아 연구자, 관객 등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2018 국내외 사례연구 및 조사

2019 자료 수집 및 구축 작업

2020 4월 OPEN

책임연구원 정주영 연구원 유혜영 리봄



ONLINE

희곡우체통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을 제공

낭만이 깃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 구분 | 연회비(원) | 혜택 |
|-------|--------|--|
| 친한 친구 | 5만원 |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
| 좋은 친구 |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10



국립극단

2018.
12.05-24

백성희장민호극장

연출 윤한솔

무대·소품 신승렬

조명 김형연

의상 김경희

무술 이국호

분장 이동민

음악 움브레

출연

김은석 김청순

박가령 박경주

박하늘 신재환

유성진 이영석

이원희 최지연

최지현

송영 작

SHINSEGAE 푸른터넷
국립극단 후원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단 백장



국립극단 x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제휴처명 | 내용 | 연락처 |
|------|---|---------------|
|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02-6004-7391 |
| | 샤오롱바오(10개) 제공 *기본메뉴 주문 시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 02-3789-2778 |
| |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 02-778-6731 |
| |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 02-779-7871 |
| | 세트 메뉴 주문 시, 프리미엄 로스트 원두커피(S) 또는 아이스크림(M) 1잔 제공 | 070-7017-6404 |
| |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룸 예약 시 호텔28 에코백 증정, 당일 객실 가능 시 early check-in, late check-out 무료 제공 *단, 호텔28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적용 | 02-774-2828 |
| | 매콤순살닭튀김소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 02-313-1880 |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ntck.or.kr | 제휴문의 02-3279-2278

예술新世界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